

## 나에게 도서관이란

김형민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들어서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도서관, 혹은 과거의 의무 교육기관에서는 도서실, 그러한 성격의 공간들에 있던 시간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를 생각해 보면, 친구들은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어울려 놀던 순간도 있었지만, 본디 그렇게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다. 나에게만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그러한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찾은 유일한 공간은 도서실이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평소에 엄청 시끄럽던 아이들마저도 도서실의 분위기에 동화되었다. 그곳에는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충분한, 어찌보면 과분한 양의 책들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도서실의 공간에 머물던 시간이 길었다. 그때부터 그 공간에 머물렀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사춘기를 맞이했다. 대중매체나 SNS에서 묘사하듯이, 별 생각을 다 하던 나이였다. 내 기억에 의하면 중학교 시절에는 책을 별로 읽지 않았다. 그런데 도서실에 간 기억은 아직도 어림פות이 난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친한 친구중에 한명이 책을 좋아했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따라서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그냥 친구와 함께 있기 위해, 만화책 중 하나를 집어 들고, 읽었다. 친구가 도서실에서 나오면 나도 쫓르르 다시 나갔다. 그렇게 사춘기 시절의 도서실에 대한 추억은 희미해진다.

고등학생이 되자, 어느 정도 철이 들었다. 그리고 현실에 눈을 떠보니 대입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혹은 논술을 위해서, 책 자체가 목적이 되는게 아니라, 책은 수단으로 전략하였다. 과거의 추억을 원동력 삼아 도서실을 들렀지만, 과거의 그 붐빔이나 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가도 거의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도서실에 있던 추억이 없다. 하지만 책을 빌려서 학교 자습실에서는 종종 읽었다. 그 시절에는 정치라는 학문에 눈을 뜨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서적이거나 정치 관련 고전 인문을 읽었다. 수능 전날, 이미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재수할 사실을 알고 있던 시절,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읽었다. 참 와달았다. '어떤 삶을 사는데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데 중요하다'. 재수 시절부터 지금의 나를 만든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대학생이 돼서 가장 먼저 간 공간은 인하대학교 도서관인 '정석학술도서관'이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웅장함에 놀랐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층이 있다는 것에 더 놀랐다. 엄청난 양의 책들이 있었다. 이 책들 중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도전하였다. 도서관의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지만 편치 않았다. 책을 읽는 사람들보다는, 영어 공부나, 전공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이 뿜는 숨막히는 열기가 나를 놀렸다. 유년 시절에 느끼던 편안한 분위기보다는, 재수학원 시절에 더 가까웠다. 그 이후에 도서관은 자주 가지만, 책은 다른 공간에서 읽는다.

나에게 도서관은 편했던 공간이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한 마음가짐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도서관은 그렇지 않다. 취업걱정, 학점 걱정, 스펙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현실을 외면하고 어찌 마음 편히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사회를 바꾸자는 영혼 없는 말 한마디도 못하겠다. 나 또한 이 사회의 부품이 될 운명이며, 나 또한 고학년이 되면 도서관에서 무거운 공기를 만드는 주범이 될 것이니. 하지만 과거의 편안함이 그리운 하다. 아무런 생각 없이 책을 뒤적거리던 그 시절이 좋았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내가 앞으로도 자주 갈 그 공간도 그랬으면 좋겠다. 도서관만큼은 누구에게나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도서관이 나에게 주는 느낌이다.